포교사단, 수행·교육·제도 정비 나선다

2월 12일 2019운영기조 공개

신행혁신 일환 1인 1수행 운동
지역별 포살·네트워크도 진행
13개 지역단 모바일 결제 보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5기 전문포교사 졸업식. 올 한 해 포교사의 역량 강화·수행진작이 본격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새해 포교사들의 수행가풍 확립과 교육,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선다. 지역별 포살법회를 비롯해 1인 1수행 운동 등을 전개하고 행정 전산화와 단복 개선 등 제도정비를 시작한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2월 12일 올해 포교사들의 수행 진작과 시대 변화에 맞는 행정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운영기조로 포교사 수행 및 종단 내 역할 정립, 조직과 인적역량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꼽고 먼저 포교사들의 개인별 수행덕목을 지정하고 지역별 포살법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포교사단은 지역단별 수행점검을 확대해 지난해 포교원과 함께 진행한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를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포교사단은 현재 이에 앞서 나란다 스터디 등 포교사단 내 수행·교육 스터디를 구성해 매주 월요일 운영하고 있다. 나란다 스터디에서는 디지털과 사찰문화 교육을 현대화된 교육을 비롯해 금강경 등 다양한 불교경전 강독 등이 진행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전법 포교의 근간은 수행에 있다. 포교사들의 사경, 108배, 참선 등 다양한 수행을 장려하고, 수행일지 보급 등을 통해 개인별 수행을 지정해 이를 점검, 지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그동안 산별적으로 진행된 지역단별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포교사단은 지난해 불교계 최초로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각 지역단에 확대 적용해 행정 현대화와 표준화도 이뤄낼 계획이다. 포교사단은 지난해 1월 본단과 시범지역단인 서울지역단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했다. 상근 직원이 대부분 없는 포교사단 특성상 모바일 등을 통한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서였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휴대폰을 통해서도 모바일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는데 전 지역단이 다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금년에는 13개 지역단이 전자결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온오프 소통공간도 만들어 포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교사단은 인터넷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해 분야별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단복 재개정 등 제도개선과 포교회관건립 기금 모금 활성화, 포교 낙후지역에 대한 포교사 양성 등도 추진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포교 전법도 변화해 나가야 한다. 포교사의 위상 강화, 종단 내 역할 정립을 통해 포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행을 통한 신심 증장과 전법 포교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자 한다. 포교사간 네트워킹을 비롯해 모바일·디지털 재교육 등을 통한 역량 확대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불교 통·번역가 도전해 볼까?

외국인들에게 불교 사상과 문화를 알리는 전문 인재양성 과정이 개설된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국제전법단(단장 계성)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불교 영어 전문 통·번역 연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불교 영어에 관심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홍연주 전문 동시 통역사와 진우기 로터스 불교영어 연구원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2019년 교육원 연수 인증 교육으로 국제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과 재가자, 템플스테이 영어담당자 등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부단장 자우 스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스님들의 법문을 영어로 잘 전달하고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연마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해 한국불교 세계화에 밑거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70)7769-8985

노덕현 기자

"불교계 종합병원 발전에 써달라"

조계사, 동국대 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 전달

2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서 전달
건강검진 협약 통해 신도 혜택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 오른쪽)이 조성민 병원장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2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병원발전기금 1억원을 동국대 일산병원에 전달하고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달식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조계사 신도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스님들만을 위해 특화된 '승가케어 검진프로그램' 혜택이 주어진다.

또 동국대 일산병원 측은 이번 전달된 기금을 바탕으로 신규 의료장비 구입 및 호스피스 병동 구축 등 다양한 병원 발전을 도모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기독교계 병원이 60여 개에 이르는 동안 불교계 병원은 일산병원을 비롯해 소수의 병원만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 병원 발전은 불교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고,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며 "조계사 기부가 다른 사찰로도 이어져 동국대 병원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종교계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동국대 일산병원장은 "불자들의 성금을 바탕으로 날로 발전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명우 동국대의료원 대외협력관은 "불교의 자존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신교와 가톨릭병원에 버금가는 불교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님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일산병원은 불교계 대표 종합병원으로 지난해 4월 건강증진센터를 새롭게 확장 개소하고 검진프로그램 구성 강화 및 다양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또 2017년 3월부터 조계종 승려복지회, 전국비구니회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님들이 안정된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발전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속가능한 실버일자리 확충"

종로노인福, 13일 기자회견

자치위원회·자문단 구성해
시니어 주도형 사업 활성화
노인 일자리 안정화에 역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5개년 운영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어르신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확대에 힘쓴 종로노인복지관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내실을 다진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월 13일 관내 종로마루홀에서 이용자·기자 간담회 및 개강식을 열고 2019년 복지관 운영계획 및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정관 스님은 "복지관의 주인은 관장, 직원이 아닌 바로 이용자 어르신"이라며 "이용자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별 지역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해 기존 특화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일자리 규모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올해 이용자자치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위원회를 통해 자치위원들이 낸 아이디어나 의견을 실제 행사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간 갈등 발생 시 중재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수진만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사업별 지역기반 자문위원회를 통한 운영방식도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다. 복지관은 죽음준비·치매예방·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 등 사업마다 이용당사자, 봉사자, 시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고령친화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더욱 주력한다. 종로구청, 마로니에공원, 복지관 본관서 운영 중인 플러스카페 1·2·3호점과 전통 장 체험관·카페는 복지관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현재 장 체험관·카페에 15명, 플러스카페에 총 어르신 50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복지관은 올해 수익 안정화로 더 많은 실버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노인주도문화사업인 종로문화애향사업 '종로&장금이' 등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정관 스님은 "확정 전이지만 소규모 장독모형에 담긴 전통 장을 지역에 전하는 찾아가는 장금이 사업도 서울시와 협업 하에 준비 중"이라며 "세대 간 전통문화를 교류 확산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18년 참가자들의 호평이 있었던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 2기를 8월부터 10월 경 진행하는 등 복지관은 회원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복지관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맑고향기롭게 2019 장학생 모집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가 길상화 장학생을 선발한다. 길상화 장학생은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는 3월 15일까지로 서류 검사를 통해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1년간의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전액이 지급된다.

장학생 추천 자격은 전국 현직 교사, 전국 사회복지사에 한하며, 구비서류는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무소유의 스승 법정 스님이 이끈 단체로 서울 성북동 길상사를 근본도량으로 두고 있다. 법정 스님이 수필집 〈무소유〉 인세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던 뜻을 이어 1994년 3월 26일 단체 발족과 함께 장학사업을 제정,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25년 동안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 674명의 중, 고등학생에게 약 1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